

강은하-안녕하세요?

자녀의 진로 지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진로 교육의 시간.
진행에 강은하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성-네,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에서
이렇게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대성입니다.

강은하-선생님, 요즘은
초연결 사회라고 불릴 만큼

다양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진로 지도 교육도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씩씩합니다.

이대성-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딱 하고 싶은

그런 얘기 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원화되고
시대가 빨리 변하고

현대 사회에서 교육 시스템은
기존의 전인 교육

내지는 전문화에 가치관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자주 하곤 하는데요.

현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그리고 현실감 있게 대응하고

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로 교육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먼데요.
이럴 때일수록 해외에서 먼저

진로 교육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은하-좋은 사례를
살펴보면

그중에 강점과 시행착오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로 교육의 선진 국가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있고

또 그 나라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대성-맞습니다.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단계별로 진로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 진로 지도 교육을
아주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강은하-우리는
초·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로 보통 진학을
많이 하잖아요.

독일은 단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대성-그렇습니다.
독일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입학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초등 교육은 4년 과정으로 하고

중등 교육 1단계가
6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중등 교육 1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명명을 하면

'하우프트슐레'라든지
또는 '레알슐레'

또는 대학 입학에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같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사실상 진로를 확정하는 단계인

중등 2단계 교육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독일의 교육 과정들이
자체로 진로 지도 교육

그리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산업체,
기업 기관들이 되겠죠.

이러한 기관들이 연계해서
도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듀얼 시스템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명을 하자면

'아우스빌둥'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쌍둥이 교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9년간의
의무 교육을 마치게 돼요.

이것을 마치게 되면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도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에 나갈 경우에

어떤 공장, 기업 이런
직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직업 훈련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또는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
직업 학교에 3년간 경험을 해서

자기가 맞는 적성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은하-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좀 쉬운데요.

독일은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또 중등 1단계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선
일찍 정해지네요.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강은하-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으면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선택권이 있고 또 일을 좀 더
먼저 시작하고 싶으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말하자면

도제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성-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도제 교육인데요.
독일식 도제 교육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우스빌둥' 시스템.

학교에서도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이게 쌍둥이 교육

듀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학생이 원하는 기업에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시험과 테스트,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업에서
도제 훈련생으로 선발이 되면

일정 기간, 3년 동안에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단위로 설명을 한다면
3~4일 정도는 현장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직업 교육을 받게 되니까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적 능력도 개발하고

일석이조의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진로 교육에 있어서

배울 게 많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55%.
이 55%에 이르는 분들이

이 같은 도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강은하-아, 많네요.

이대성-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시험을 통해서

기술 수준 평가를
받게 하는 시스템인데

정규 직장에 취업을 하는 비율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한 95%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증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육을 마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국내에
서서히 도입된 것도 있고

국내에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강은하-네, 맞습니다.

이대성-그런 경우들이 아마
제대로 된 장점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도입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은하-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이 장인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마이스터가

독일에 독특한 기능 인력 제도로
최고의 기술 장인한테 주는

그런 호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대성-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은 중등 1단계
교육까지

진로를 확정 짓도록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확정 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따라서 목적 지향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진로 교육이

빠를수록 효과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조기 진로 교육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있고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것에도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강은하-네, 깜짝 질문입니다.

이대성-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높을까요? 낮지 않을까요?

강은하-음, 아까 말씀하신 수치도 있고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학생 스스로 정한

진로대로 움직여지니까 대학을 꼭 가야겠다

이런 의미가 열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진학률이 낮지 않을까요?

이대성-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학교에 꼭 가야 된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서적 압박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은하-슬프죠.

이대성-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진학률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데이터를 잠깐 언급하면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이 한 40%대 내외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작년 같으면 한 68.7% 정도

약 69% 정도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높았을 때는 약 82%까지

나왔던 때가 있어요.

강은하-OECD 거의 2배네요.

이대성-거의 2배죠. 독일은
한 27%~28% 정도 나오니까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은 국가 경쟁력 및
GDP 순위가 상당히 높죠.

세계 4위 정도 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교육 제도를 운용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교육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은하-설명을 들으니깐
독일 학생들과 시스템이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대성-네, 맞아요.

강은하-사실 독일 학생들은
원하는 대로 진로를 일찍 잡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잘 맞춰서 구하게 되고

직장도 잡고
안정적으로 가고

뭔가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을 좀 보면

진로를 정하는 데도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직업, 진로
무엇 하나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이대성-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가르쳐주세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진로 교육을
함께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문게 된 지식을 서로 이해하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 진로 지도 교육을 하는데

좀 참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은하-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대성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성-아, 감사합니다.

강은하-독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네, 독일 이외에도
핀란드처럼 진로 교육의

선진국이 있지만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국가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강은하-스위스요?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난 나라가 바로 스위스.

정밀 기계, 시계, 이렇게 많이
알려진 국가인데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한 30%대 수준에 불과한데

청년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최저 수준인 7%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강은하-걱정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하겠네요.

이대성-덜하죠.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이 비교적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높은
청년 취업률이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원인,
본질적인 근거를 두드려 봤더니

바로 진로 교육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하-중요합니다.
이대성-그렇죠.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전체 직원의

한 5% 정도 상당을 도제생으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은하-독일은 아까
듀얼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고

스위스도 지금 관련해서
도제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스위스 학제 편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성-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위스의 취학 연령이 우리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7세 정도이고요.
스위스 내에 거주하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인 경우에
폴크스슐레(Volksschule)라는

의무 교육 기간이
한 9년 정도가 되고요.

강은하-기네요?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9년 정도면 상당히 긴 편이죠.

그리고 초등 과정이 한 6년,
그리고 이후에 3년 과정을

중학교에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졸업한 다음에는

바로 직업훈련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한 2년에서
4년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 학기제라고 그래서

한 6개월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스위스 학생들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현장에서 직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스템,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수공 분야,
예를 들어서 기계공이라든지

아니면 목수공, 제빵,
미용사 등과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백오피스라고 그러죠.

사무직인 경우에 비서,
아니면 부기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직업 분야를

스위스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점은
스위스의 많은 기업체가

이러한 과정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강은하-부럽습니다.

이대성-굉장히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학비 없이도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바로 스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에서
청소년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론, 그리고 실무까지 겸비한
인력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기업도 굉장히

강은하-도움이 되겠죠.
이대성-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도제식 교육에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도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낮게
잡아도 한 10만 곳에 이르기 때문에

강은하-10만 곳이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강은하-네, 맞네요. 정말.
이대성-그렇습니다.

강은하-그렇게 탄탄한 기업의 후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제 교육의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러움도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 교육도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성-두 개 국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두 나라 모두 약 2년에서
최대 5년간의 현장에서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충분히 배려하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은하-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냥 적성과 점수에 따라서

기업에 직업을 선택한 경우는
와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흘러가는데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대성-결과적으로 수요자인
기업이 만족하니까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은하-그렇겠죠.

이대성-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업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이라든지 전공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부모와 선생님의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지시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진로를 잡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독일의 '아우스빌둥' 시스템과
스위스의 '도제식'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자신감에도
도움이 되지만

동기 유발적인 자존감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직업 선택에 대해서 만족감

그리고 자존감 더 나아가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 조직 적응력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개 국가에서 하는
직업진로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은하-성장 동력을 다른 데서
찾기보다 업무까지 연결이 되는

이 진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대성-맞습니다.

강은하-우리나라도 진로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대성-교육 당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종류를 한번 열거해 보자면
현장 방문 이런 것도 있고요.

현장 학습, 또는 자유 학기제
요즘 자유 학년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
도입 단계이고요.

그리고 부모님 초청 특강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간혹 명사님들을
모셔서 명사 특강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적성 검사 테스트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체험 학습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활동들의 참여 기업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소수의 직업에 국한된
직업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점점 문제가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제 교육에 참여한 기업이
각각 45만 곳 이상이 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곳 정도가 되니까

우리 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그 수치를 언젠가는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대성-우리나라, 계획하면
실행하지 않습니까?

강은하-그렇죠.

이대성-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교내에서 암기식

뭐 이런 스펙 위주의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방과 후에도 사설 학원에서
계속 외우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두 개 국가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은하-스위스와 독일의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진로 교육의 잘한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국내에도 장점이 있는
교육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교육의 사례를 소개 드린다면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WC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강은하-들어봤습니다.

이대성-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World Class College'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은 직업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직업적인
전문인 양성을 하는 곳이

전문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2011년부터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한 18개 전문대학에서

이 WCC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

비교적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강은하-희망적입니다.

이대성-그렇습니다.
희망적이고 굉장히

기대해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WCC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직업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서

현재 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실이 아닌 직업 현장에서
독일의 아우스빌등 시스템과 같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학에서
취업·진로 부문 자문 위원과

그리고 취업 교육 과정에
초청이 되어서

관련 학습 경험이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정말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진로가 없는 학생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은하-표정부터 다를 것 같아요.

이대성-그렇습니다. 표정이나
어떤 수업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실무를 대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

열정이 너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희망을 갖고
직업, 그리고 진로를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저변화되고 확산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진로를 대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거기에서
자존감을 높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강은하-한 명의 자녀가,
학생이, 국민이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성-네, 맞습니다.

강은하-어떤 노력들을 더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대성-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첫 번째, 국가에서의 역할은

국가 노동 인력 수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진로 중에서 노동 인력의
수요가 많은 쪽에 진로를 두고

그러한 면에 속한
진로 교육을 해 주신다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진로 교육을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무언가 개인의 욕구, 욕심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 교육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정형화된 틀에서 뭔가
정당하게 학교에 요구하고

그러한 지식에 의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도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진로 교육을 체계화하고
조금 더 아카데미칼 하게 해서

매뉴얼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하-뜻을 모으면
이루어지겠죠.

이대성-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이

서로의 단합,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강은하-네, 맞습니다.

이대성-학부모, 학교, 지역 사회가
서로 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일컬어서 지역 사회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이듯이

기업과 학교, 학부모 서로가 손을
잡고 진로 시스템을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
행정의 측면에서

진로 교육 행정의
컨트롤 시스템을 공고히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제도,
실행, 이런 것들이

잡혀져 가면 뭔가 우리도
머지않은 시기에

독일과 스위스 같은
좋은 진로 교육 시스템을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진행자와 제가 나누고 있고

또 이 화면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강은하-없습니다. 어렵죠.

이대성-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에
성공한 진로 교육의 모범사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모든 제도는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진로 교육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고, 그렇죠.

좋은 성과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모든 진로 교육의 중심에

자녀를 놓고 그리고 우리 학생
즉,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을 늘 관찰하고
동기부여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잡(Job)을
찾아주기 위해서

항상 관찰하고 염려해 주고
소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강은하-진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흐르는 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대성-아, 그렇죠.

강은하-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인의 진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면

'학생의 진로에 문제가 있었다.'
느낄 수 있고

또 학생의 진로는 살펴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잘 알고 실천을 하는 것부터

자녀의 진로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